tvN '보이스' 시즌4 제작발표회…흥행의 키를 쥔 송승헌

18일 선보이는 tvN '보이스' 시즌4의 송승헌(오른쪽)과 이하나가 16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시리즈의 '원조' 주연 이하나와 처음 호흡을 맞추는 송승헌은 "풍성한 서사와 액션 연기"로 펼쳐내는 자신의 캐릭터가 시청 포인트라고 자신했다. 사진제공 | tvN

"못하면 내 잘못…전학생 신분이니 부담 크네요"

강도 높은 액션신 이 악물고 소화
"미국서 온 형사 역…대본 읽고 OK
앞 시즌 주인공과 다른 모습 고민"

"이렇게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올해로 데뷔 26년차인 송승헌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드라마가 있다. 2017년 선보인 후 18일 시즌4로 시청자를 찾는 tvN '보이스'이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도전하는 시즌제 드라마에 "이미 팀워크가 완벽한 출연진 사이에 들어가는 '전학생' 신분"이니,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부담감을 덜어내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일까. 14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송승헌의 얼굴에선 제법 비장함이 흘렀다. "잘 돼도 본전, 못하면 제 잘못"이라고 남다른 각오를 전했다. 극중 현장을 누비는 형사 데릭 조 캐릭터를 위해 "뛰다가 돌아서면 또 뛰어야 할 만큼 강도 높은 액션 장면"도 이 악물고 소화하고 있다.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 '초청력'의 소유자로 앞선 시즌을 이끈 112신고센터장 이하나와 때로 대립하고 때로 공조하며 긴장감도 살린다.

"미국에서 온 형사 역할로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과연 팀에 녹아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장혁·이진욱 등 앞선 시즌의 주인공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고민이 많이 됐고요. 하지만 넘치는 스릴 때문에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는 대본을 읽고 나서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시즌에 참여한 이하나와 지령팀장 역 손은서를 길잡이 삼아 적응 중이다. 송승헌은 "모두가 반갑게 맞아준 덕분에 초반의 걱정과 부담감을 많이 덜어냈다"면서 "오히려 시청자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 첫 방송을 기다릴 정도"며 웃었다.

"시청 포인트로 제가 맡은 데릭 조 캐릭터를 감히 꼽아봅니다. 이번 시즌에 등장하는 살인마 '서커스맨'과 악연이 있어서 단순히 범인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넘어 더 풍성한 서사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출연해온 '골든타임 팀'과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도 분명 재미있을 겁니다."

송승헌의 존재감은 함께 주연 호흡을 맞춘 이하나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정도다. 이하나는 "하도 읽어서 한껏 너덜너덜해진 송승헌의 대본에 부끄러워 내 대본을 감춘 적도 있다"면서 "현장을 향한 열정과 애정이 남달라 나도 고삐를 다시 잡게 됐다"고 털어놨다.

자비 없는 연쇄살인마를 쫓으면서 쉼 없이 달리고, 자동차에 부딪히는 고생도 고스란히 담긴다. 송승헌은 "다양한 액션을 경험해봤지만 이번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는 처음이다"면서 "그만큼 시청자도 화끈하고 시원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젝스키스 장수원, 스타일리스트와 11월 결혼

아파트 주민사이…3년 전부터 교제
코로나 확산으로 결혼 날짜는 미정

그룹 젝스키스 장수원(41)이 11월 결혼한다.

장수원은 김재욱, 정경호, 양세종 등 연기자들의 스타일을 담당하는 한 살 연상의 스타일리스트 지모 씨와 11월 백년가약을 맺는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사랑을 키워오다 최근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14일 연예계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기도 하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눠왔다"고 밝혔다.

젝스키스 장수원

장수원과 지 씨는 최근 결혼 일정을 11월로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결혼식 날짜는 유동적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나이가 적지 않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식을 올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장수원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젝스키스 멤버로 데뷔한 지 어느덧 25년째인 제가 서로 아껴주며 이해하고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전했다. 소속사도 "장수원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이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팬들도 축하인사를 보내고 있다.

장수원의 결혼 소식으로 젝스키스는 이재진에 이어 두 명의 멤버가 가정을 꾸리게 된다. 장수원은 1997년 젝스키스 멤버로 데뷔해 1세대 아이돌로 사랑 받았다. 그룹은 3년간 활동하다 2000년 해체했지만, 팬들의 염원으로 2016년 재결합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코미디계, 보릿고개 넘어라…'영역 확장' 잰걸음

BICF 8월20일 개최·'개가수의 탄생' 생중계
이수근·신동엽 등은 OTT 통한 프로그램 박차

한동안 침체했던 코미디 무대가 온라인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발판삼아 새롭게 도약한다. 개그맨들이 잇따라 관련 콘텐츠를 내놓으면서 코미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올해 9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은 최근 8월20일 개최를 확정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집행위원장인 개그맨 김준호 등 운영진이 국내외 다양한 개그 공연팀과 무대 구성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관련 콘텐츠도 조금씩 내놓기 시작했다.

김준호

13일 개그맨 박성호, 김인석, 안윤상 등이 노래 실력을 겨루는 '개가수의 탄생'을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트위치로 생중계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생중계에 주력했으나 올해에는 백신 접종 등으로 오프라인 공연 기회도 엿보고 있다.

이수근과 신동엽 등 베테랑들은 OTT로 영역을 확장한다. 이수근은 7월9일 넷플릭스로 스탠드업 코미디쇼 '이수근의 눈치코치'를 내놓는다. 신동엽이 이끌어온 'SNL코리아'도 새 OTT인 쿠팡플레이와 최근 독점 공개 계약을 맺는 등 제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6년간 tvN에서 방영한 뒤 OTT에서만 공개하는 건 처음이다.

유일한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인 tvN '코미디빅리그'는 9월 방송 10주년 특집을 두고 제작진이 고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제작진과 김용명·문세윤·황제성·최성민 등 개그맨들이 관련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다. 대한민국스탠드업코미디 조직위원회가 여는 스탠드업 코미디 오디션 콘텐츠 '황금마우스'도 있다. 오디션을 통해 개그 신인을 발굴한다. 8월8일까지 예선과 본선을 치르고 8월12일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서유럽 '맥도날드 장벽'에 아미 폭발

BTS 버거, 영국·프랑스·독일 국가 등만 판매 안해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맥도날드와 협업한 세트 메뉴가 세계 50개국에서 선보이는 가운데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방탄소년단(BTS) 팬들의 실질적인 구매력 차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시선을 끈다.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는 5월26일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50개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더 BTS 세트'를 판매 중이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 등 북미 및 중남미 등에서 인기리에 팔려나가고 있다.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에선 판매하지 않는다. 독일 MTV와 프랑스 BFM TV 등 언론에 따르면 현지 팬들의 항의와 판매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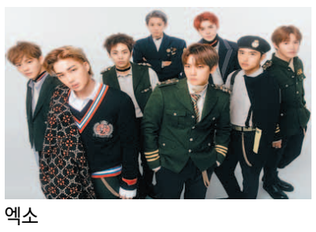
14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이유진 베를린 통신원은 "독일 맥도날드는 50주년에 집중하기 위해 BTS 메뉴를 출시하지 않는다"는 현지 매체 버즈피드의 보도를 인용했다. 다만 이 통신원은 "케이팝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서유럽 지역의 어떤 견고한 장벽이 느껴진다"면서 "온라인 화력과 액션으로 무장한 아미(BTS 팬덤)의 힘이 현실 시장의 소비력으로 얼마나 전환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전체 매출 규모 가운데 이 그룹의 비중이 87.8%(2020년 상반기 기준)인 가운데 한국과 아시아가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 뒤이어 북미 지역이 20% 가까운 규모이지만 유럽 지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더 BTS 세트'가 방탄소년단 팬덤의 실질적인 소비행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형도가 된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새 앨범 낸 엑소, 여섯번째 밀리언셀러 기록



엑소

그룹 엑소가 새 앨범을 100만장 팔아치우며 여섯 번째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4일 "7일 발표한 엑소의 스페셜 앨범 '돈트 파이트 필링'(DON'T FIGHT THE FEELING)이 전날까지 108만9681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2013년 정규 1집 'XOXO'(Kiss&Hug)를 시작으로 2018년 '러브 샷'까지 총 5장의 앨범을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려놨다. 이날 한터차트, 신나라레코드 등 음반 사이트 주간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프리즈', 빌보드200 5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이돌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5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14일(한국시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정규 2집 '혼돈의 장:프리즈'(FREEZE)가 이번 주 빌보드200에서 5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 차트에서 기록한 최고 순위로 지난해 '미니소드1:블루아워'의 순위보다 20계단 상승했다. 케이팝 그룹 가운데 빌보드200 톱5에 오른 팀은 현재까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블랙핑크, 슈퍼엠, NCT 127, 몬스타엑스 등 6팀뿐이다.

배우 박기웅, 두번째 단독 개인전시회

박기웅

연기자 박기웅이 두 번째 단독 개인전시회 'Ki.Park-Re:+'를 연다.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에 따르면 전시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 L7 3층 버블라운지에서 열린다. 21일은 전시 일정이 없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박기웅이 그린 총 33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박기웅은 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에서도 미술을 전공했다. 2005년 영화 '괴담'으로 데뷔한 박기웅은 드라마 '각시탈' '몬스터' 등에 출연했고, 현재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유 레이즈 미 업' 공개를 앞두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